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국 지방소형은행들의 어려움 지속

- 지난 4월 29일 미 예금보험공사(FDIC)는 플로리다, 조지아, 미시건 주 등에서 5개의 소형은행이 파산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로서 올해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수는 총 39개로 증가함.
 -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3건에 불과했던 은행 파산 건수가 2008년 25건, 2009년과 2010년 각각 140건과 15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2011년 들어 4월 현재 은행 파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5건 감소한 39건을 기록 중임.
 -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은행 파산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총 768억 달러였으며, 이번 5개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6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됨.
 -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파산이 가속화된 2009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2010년 12월 현재 적자 규모는 74억 달러에 달함.
- 사업분야가 다양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소유한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예금·대출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형은행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JP모건의 1/4분기 순이익은 모기지, 신용카드부문 등에서의 대손충당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7% 증가하였으며, BOA도 투자은행 부문의 수수료 수입 증가로 3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형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음.
 - 반면 지방소형은행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실대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지방소형은행의 파산 건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 크게 증가한 바 있음.
 - 한편 2010년 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으로 지정한 은행 수는 전체 은행의 12%에 해당하는 884개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, 부실은행의 대부분이 지방소형은행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향후에도 지방소형은행의 부실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(Wall Street Journal, 4/29 등)